

한국인의 상황 특성 인식에 기반한 상황 분류 모델 - DIAMONDS 모델을 중심으로*

문희정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황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구성 요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구권에서 상황의 구성 요인을 분류하기 위해 개발된 DIAMONDS 모델이 한국인의 상황 특성 인식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적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5~39세 성인 남녀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DIAMONDS 모델을 측정하는 도구인 RSQ-8에 대해 두 가지의 연구 설계 방법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RSQ-8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RSQ-8과 Situation Six 질문지 및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 및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설계에 따른 DIAMONDS 모델 구성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다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대체로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수렴 및 준거 타당도 역시 검증되었다. 또한 연구 설계에 따른 두 집단의 요인 구조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DIAMONDS 모델의 문화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서구권에서 실시된 DIAMONDS 모델의 타당화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황 분류 모델, 상황 특성, DIAMONDS 모델, RSQ-8, 문화적 타당화

* 본 연구는 문희정(2022)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IAMONDS와 CAPTION 상황 분류 모델의 문화적 타당화 및 통합적 상황 분류 모델의 개발'을 일부 발췌 및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 2024,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Murray, 1938). 이에 심리학자들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그중 대표적인 요소가 심리적 요인인 성격(Personality)과 외부적 요인인 상황(Situation)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성격을 친화성(Agreeableness) · 성실성(Conscientiousness) · 외향성(Extroversion) · 신경증(Neuroticism) · 개방성(Openness)으로 분류하는 5요인 모델(Costa & McCrae, 1980; Digman, 1990)과 같은 성격 분류법이 개발되었으며, 이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리학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상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과 상황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행동에 미치는 상황의 영향력을 간과한 채 성격 요인의 영향력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거나, 혹은 성격 요인과 특정 상황 요인(예: 양육 환경, 보상 유무)과의 상호작용만을 다룬 연구들이 인간 행동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상황이 몇 개의 어떤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Rauchmann과 동료들(2014)의 연구를 필두로, 심리학자들은 최근 10년 동안 비슷한 속성을 가진 상황들을 분류하는 상황 분류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최근까지 총 7가지의 상황 분류 모델이 도출되었다. 그중 현재까지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가장 긍정적인 타당성을 확보한 상황 분류 모델은 의무(Duty), 지적 능력(Intellect), 역경(Adversity), 연애(Mating), 긍정성(Positivity), 부정성(Negativity), 기만(Deception), 사회성(Sociality) 요인으로 구성된 DIAMONDS 모델(Rauchmann et al., 2014)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DIAMONDS 모델을 비롯해 상황 분류

법과 관련된 여타의 연구는 모두 서구 문화권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구 문화권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타당성이 확보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의 인식에는 개인이 가진 문화적 배경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Nisbett & Norenzayan, 2002), 특정 상황 분류법이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구 이외의 문화권에서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선구적인 연구로서 상황 분류법에 대해 DIAMONDS 모델이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도 타당성을 갖는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인간 행동의 이해

심리학 연구들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명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다(Murray, 1938). 그중 대표적인 요소가 인간의 심리 내적 요인인 '성격'과 심리 외적 요인인 '상황'이다. 특히 성격을 포함한 사람(Person) 요인과 사람 외부에 존재하는 상황(Situation) 요인 중 어떤 요소가 인간 행동의 핵심 요소인지와 관련된 논쟁을 '사람-상황 논쟁(Person-Situation Controversy)'이라고 한다. 이때 사람의 성격 요인을 인간 행동 발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입장은 특성 이론(Trait Theory)이다. 특성 이론가들은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특성(Trait)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이때의 특성이란, 한 사람이 가지는 일관적인 인지·행동·정서의 수준을 의미한다(Guilford, 1975). 특성 이론가들은 이러한 특성의 일관성으로 인해 한 개인은 광범위한 상황하에서도 행동의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Allport, 1937). 그러나 이러한 특

성 이론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보이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격의 일관성을 증명하기 위한 특성 이론가들의 노력은 대부분 실패하였다(Mischel, 1968). 이에 특성 이론가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인간의 행동은 오직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던 이론가들이 상황론자(Situationist)이다. 상황론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행동이 성격의 개인차가 아닌 상황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한 개인이 상황에 따라 보이는 행동의 동일성이 약 .10~.30의 상관 수준에 그친다는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성격을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Mischel, 1968; Newcomb, 1929).

한편 특성 이론가들과 상황론자들의 대치는 ‘사람-상황 상호작용 이론(Person-Situation Interaction Theory)’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사람-상황 상호작용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상황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과 상황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Funder, 2006; Mischel & Shoda, 2000).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사람과 상황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특성 활성화 이론(Trait Activation Theory: TAT)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해석이 실제적 행동에 어떤 차이를 일으키는지 설명하였다(Tett & Burnett, 2003). 또한 전체 특성 이론(Whole Trait Theory: WTT)에서는 성격 특성이 드러나는 행동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행동의 수준은 밀도 분포를 이루며, 이러한 밀도 분포 차이를 통해 개인 간의 행동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Fleeson & Jayawickreme, 2015). 이와 같이 성격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

해 성격과 상황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었다.

성격의 구성 요소 및 성격 5요인 모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상황 상호작용 이론은 사람 내적 요인인 성격과 사람 외적 요인인 상황 측면 모두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심리학자들의 명확한 합의를 기반으로 등장하였다(Fleeson, 2004; Reis, 2008). 이에 상호작용의 주요 축인 성격과 상황 각각의 측면을 면밀히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먼저 성격은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성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Phares(1984)는 성격을 ‘시간과 상황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정서·사고 및 행동 패턴’으로 정의하였다. 성격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특히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요소를 범주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 현재 성격 이론의 주류로 자리 잡은 성격 특성 이론은 특성이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통해 인간이 가진 성격을 분석하고 범주화하고자 하였다(Goldberg, 1981). 이를 위한 최초의 연구는 영어 사전에서 인간의 성격 특성을 표현하는 1,800여 개의 형용사를 추출하여 이를 범주화한 것에서 출발하였으며(Allport & Odbert, 1936), 후대의 학자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분석·범주화하여 성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5개의 특성을 분류하였다(Cattell, 1943; Eysenck & Eysenck, 1975; Goldberg, 1990). 그 결과, 성격이 5개의 특성으로 구성된다는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 FFM) 이론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는

성격 이론이 되었다.

성격의 5요인은 Big 5라고도 불리며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으로 구성된다 (Goldberg, 1981). 구체적으로 친화성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향성이며, 성실성은 목표를 향한 일관된 집중력과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외향성은 타인 및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 수준과 활동성을 나타내며, 신경증은 개인이 불안·두려움·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의 경우 새로운 경험이나 외부 자극, 변화, 다양성을 선호하는 정도이다.

상황의 정의 및 특징

성격의 정의 및 성격 특성의 분류는 심리학자들 간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상대적으로 상황에 대한 연구는 성격 연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Block & Block, 1981). 또한 '상황'은 심리학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학자들 간에 그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Hogan, 2009). 이는 하나의 상황 속에는 그것이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특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 및 특성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상황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상황이란 '주어진 장소와 시간에 공존하는 종합적인 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Pervin, 1978). 즉 객관적 상황은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며, 상황 속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와 관련된 정보이다. 이러한 상황의 측면은 누가 측정해도 동일한 평가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가진다 (Mackler, 1942). 이와 달리 주관적 상황은 심리적 상황으로도 불리며, 한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고유한 경험과 인식에 초점을 둔다

(Rauthmann, Sherman, Nave, & Funder, 2015). 즉 주관적 상황은 객관적 상황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와 해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상황이기며, 동일한 객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당 상황에서 도출되는 주관적 상황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상황 분류의 필요성

한편 상황 요인에는 다양한 정보와 특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몇 가지의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합의 역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의 주요 목표가 광범위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예측인 만큼,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격이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합의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간결한 분류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분류 체계가 개발되면 인간이 경험하는 광범위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Reis, 2008).

초기의 상황 분류 연구

이와 같은 상황 분류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1960년대 이후 상황의 특징을 규명하고 그것을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상황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예: 여가 생활, 종교 활동)이나 특정 대상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예: 주부가 주로 경험하는 상황)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로 다루었다(Yang, Read, & Miller, 2009). 또한 초기의 상황 분류 연구들은 대부분 상황 분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데(Rauthmann & Sherman, 2020), 이는 상황 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상황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단일 연구에서 도출된 상황 분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에 해당 연구 결과를 후속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다(Rauthmann, Horstmann, & Sherman, 2020).

2세대 상황 분류 모델

한편 최근의 상황 분류 연구는 Rauthmann과 동료들(2014)이 상황 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연구 이후에 개발된 상황 분류법을 '2세대 상황 분류법(Wave 2 Taxonomy)'이라고 지칭한다. 2세대 상황 분류법에 속하는 모델에는 인간의 성격 특성을 표현하는 상황인 DIAMONDS 모델(Rauthmann et al., 2014)과 Big 5 Framework(Griffo & Colvin, 2019), 상황의 특징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요인분석하여 도출한 CAPTION(Complexity, Adversity, Positive Valence, Typicality, Importance, hu**Or**, Negative Valence) 모델(Parrigon, Woo, Tay, & Wang, 2017), Situation 5 모델(Ziegler, Horstmann, & Ziegler, 2019), Situation Six 모델(Oreg, Edwards, & Rauthmann, 2020), 그리고 진화론 및 상호 의존 이론과 같은 학술적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SAAP(Situation Affordances for Adaptive Problems) 모델(Brown, Neel, & Sherman, 2015)과 SIS(Situational Interdependence Scale) 모델(Gerpott, Balliet, Columbus, Molho, & De Vries, 2018)이 포함된다.

2세대 상황 분류법은 초기의 상황 분류법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먼저 2세대 상황 분류법은 객관적 상황이 아닌 주관적 상황에 대한 분류법이다(Edwards & Templeton, 2005;

Parrigon et al., 2017; Rauthmann et al., 2014; Yang, Read, & Miller, 200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관적 상황이란 객관적 상황을 개인이 어떠한 주관적 방식으로 해석하는지와 관련된 상황이다. 특히 이때 개인이 특정 객관적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상황 특성(Situation Characteristic)'이라고 한다. 상황 특성은 개인이 상황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여 평가한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자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 특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에 심리학자들은 상황 특성을 개인의 고유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Edwards & Templeton, 2005; Mischel & Shoda, 1995). 즉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상황 인식을 반영하는 상황 특성에 대한 분류법을 확립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상황 특성에 대한 분류법의 개발과 더불어 해당 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간결하고 실용적인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다는 것 역시 2세대 상황 분류법의 특징이다. 초기의 상황 분류 연구에서는 상황에 대한 개념적인 분류만을 제시했을 뿐 상황 분류법을 측정하는 도구가 함께 개발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상황 분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한정적이었다(Rauthmann & Sherman, 2020). 그러나 2세대 분류법이 등장한 이후 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함께 개발되면서, 상황 분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의 종류, 연구 대상자 및 상황 연구의 방법이 종전보다 다양화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초기의 상황 분류법이 단순히 상황에 대한 분류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2세대 상황 분류법의 경우에는 인간 행동의 이해에 직접적인 유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2세대 상황 분류법들은 상황 분류를 통해 성격과 관련된 행동(Griffo & Colvin, 2019; Oreg et al., 2020; Rauthmann, Jones, & Sherman,

2016), 일상 행동의 역학(Rauthmann & Sherman, 2016), 진화론적 문제(Brown et al., 2015), 사회적 상호작용(Gerpott et al., 2018)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상황 분류 모델들이다.

DIAMONDS 모델

이처럼 상황 분류법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상황 분류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황 분류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일곱 가지의 2세대 상황 분류법 중 먼저 DIAMONDS 모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DIAMONDS 모델은 이미 다양한 서구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모델이며, 다른 모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가진 대상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간결한 상황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authmann & Sherman,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DIAMONDS 모델이 한국인이 경험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상황 분류 모델인지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DIAMONDS 모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89가지의 광범위한 상황을 제시한 RSQ(Riverside Situational Q-Sort; Wagerman & Funder, 2009; Funder, 2016)를 요인분석하여 개발된 모델이다(Rauthmann et al., 2014). Wagerman과 Funder(2009)는 RSQ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상황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일상생활과 실험실 연구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89종류의 상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89개 문항으로 구성된 RSQ를 개발하였다. 특히 RSQ는 상황이 가진 객관적 단서가 아닌 주관적 상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최초의 검증된 도구이다. 또한 RSQ에서 표현하는 상황들은 모두 성격 5요인을 비롯한 성격 특성과 연관성을 갖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Sherman, Nave, & Funder, 2010). 그러나 RSQ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89개의 많은 문항 수로 인해 측정의 실용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Rauthmann과 동료들(2014)은 RSQ에서 제시한 89가지의 상황을 요인분석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여덟 개의 요인으로 상황을 재분류하였다. 재분류된 상황은 '의무, 지적 능력, 역경, 연애, 긍정성, 부정성, 기만, 사회성'의 여덟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Rauthmann et al., 2014).

의무는 주어진 역할이나 업무 상황에서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하거나 완료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와도 관련된 요인이다. 의무적인 상황은 기존 문헌에서는 업무 중심성(King & Sorrentino, 1983), 업무(Pervin, 1976), 체계 유지(Moos, 1973) 등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주로 업무·시험·등교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의무 상황은 상대적으로 다른 상황에 비해 일상에서 관찰되는 빈도가 높다. 지적 능력은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하거나 깊은 성찰 역량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상황 분류 연구에서 지적 능력과 관련된 상황을 독립적인 요인으로 분류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적 능력은 단순히 심층적이고 성찰적이며 인지적인 처리를 요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지적 처리의 결과를 외부로 드러내는 상황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과도 결부될 수 있다. 역경은 구체적인 위협을 경험하는 상황을 지칭하며, 갈등·경쟁·비판·비난·희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인 상황이다. 역경 요인은 선행 상황 연구의 경쟁(Eckes, 1995), 대인 관계 갈등(Ten Berge & De Raad, 2002; Van Heck, 1989), 다툼(Krause, 1970) 등의 요인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친구와 함께 있는 상황, 게임 상황 등의 객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연애는 연애 혹은 성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

과의 관계와 관련된 상황이며, 해당 상황이 연애와 성적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즉 연애 상황은 데이트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과 관련된 상황, 혹은 잠재적인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현재의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들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선행 상황 분류 연구에서 가족(Forgas, 1976), 친밀감(King & Sorrentino, 1983) 등의 요인이 연애 요인과 비슷한 맥락으로 분류되었다. 긍정성은 상황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으며 즐거운지, 혹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인식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긍정성은 포괄적인 범위의 상황을 분류하고자 시도했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요인이며, 즐거움(Ten Berge & De Raad, 2001), 휴식 지향적인(Eckes, 1995; King & Sorrentino, 1983), 놀이(Krause, 1970) 등의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부정성은 긍정성과 반대로 상황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좌절·불안·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기술이며, 긍정성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행동이 아닌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에 대한 분류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두려움(Eckes, 1995), 즐겁지 않은(King & Sorrentino, 1983), 긴장된(Pervin, 1976), 목표 달성 실패(Yang et al., 2006) 등이 부정성과 유사한 요인들로 분류된 바 있다. 기만은 사람들이 상황에서 불신, 적대감, 거짓말 등 상호 간의 신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을 얼마나 자각하는지와 관련된 상황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기만 요인을 단독적인 상황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기만행위가 행위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고 미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 기만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auchmann et al., 2020).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발생하거나, 타인과 관계 형성을 통한 온정이나 안도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성

은 선행 연구에서 대인 관계 상황(Battistich & Thompson, 1980; Van Heck, 1989), 친밀감(Eckes, 1995), 사회성(Magnusson, 1971) 등 가장 동질적인 단어들로 명명된 요인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성 요인은 문화와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 학자들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Reis, 2008).

문화적 타당화

한편 상황 특성 분류 및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타당성(Cultural Validity)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적 타당성은 특정 문화권에서 개발된 이론 및 측정 도구를 다른 문화권의 연구 대상에 적용하고자 할 때, 해당 이론과 도구가 가지는 적합성과 유용성이다(Leong & Chou, 1997). 특히 상황 특성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문화적 배경이 상황 특성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특정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은 객관적인 상황 단서를 마주할 때 그 단서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스키마(Cultural Schema)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동일한 상황이라도 문화권에 따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Nisbett & Norenzayan, 2002).

선행 연구를 통해 상황과 문화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인간은 특정 행동 반응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데(Funder, 2016),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문화에 따라 특정 상황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달라지거나 특정 상황을 보다 민감하게 지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타인의 적대적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민감하게 포착해 낸

다는 것이 밝혀졌다(Cohen & Nisbett, 1997). 뿐만 아니라 문화권에 따라 개인은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지각하기도 한다(Rauchmann et al., 2014). 일례로 미국·영국·일본·캄보디아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한 결과, 오직 미국인들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모두 나타낸다고 보고(Kikutani, Ikemoto, Russell, & Roberson, 2016)하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흥분을 유발하는 자극 추구 활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Tsai, 2007).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서구 문화권과 한국 문화권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주관적 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가령 최근 한국 사회의 2030 청년층에서는 경제적 문제, 자기 개발 등의 이유로 연애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삼포 세대’로 지칭되는 등 청년층의 연애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22).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연애와 관련된 상황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위협적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즉 DIAMONDS 모델을 한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타당화할 경우 ‘연애’ 요인이 ‘부정성’ 혹은 ‘역경’ 상황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가능성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황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고유한 심리적 상황 분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서구에서 개발되었으며 주관적 상황 인식을 측정하는 DIAMONDS 모델이 한국 문화권의 상황 분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화 결과를 통해 서구 문화권에서 진행된 DIAMONDS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상황 분류의 보편성 및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방 법

연구 대상

DIAMONDS 상황 분류 모델이 국내의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 자료 수집 업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상황 분류 관련 연구이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의 표본은 최대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자를 전국에 거주하는 만 25~39세의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장성인 남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43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방법 1(ver 1)에 212명, 연구 방법 2(ver 2)에 219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의 표본의 수가 측정 문항의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했을 때, 해당 표본 수는 충분(Tabachnick, Fidell, & Ullman, 2007)하다고 판단된다. 연구 방법 1의 참여자 평균 연령은 32.76($SD = 4.0$)세이며, 그중 남성은 105명(49.5%), 여성은 107명(50.5%)이다. 연구 방법 2의 참여자 평균 연령은 33.04($SD = 4.1$)세이며, 그중 남성은 108명(49.3%), 여성은 111명(50.7%)이다.

측정 도구

Riverside Situational Q-Sort-8(RSQ-8)

DIAMONDS 모델을 측정하기 위해 DIAMONDS 모델에 포함된 여덟 가지 구성 요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RSQ-8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Rauchmann et al., 2014). RSQ-8 척도는 DIAMONDS 모델의 여덟 가지 구성 요인을 포함하는 RSQ의 89개 문항 중 각 요인별로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4개 문항을 추출하여 구성된 RSQ의 단축형 도구이다. 본 척도는 의무(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적 능력(예: ‘상황은 지적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역경(예: ‘비판을 받고 있다.’), 연애(예: ‘잠재적인 성적 또는 연애 파트너가 존재한다.’), 긍정성(예: ‘즐거운 상황이다.’), 부정성(예: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기만(예: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성(예: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의 여덟 개 요인을 측정하는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RSQ-8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평가된다(1 = ‘매우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

Situation Six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RSQ-8의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Situation Six 모델을 측정하는 Situation Six 질문지를 활용하고자 했다. 수렴 타당도는 개발된 측정 도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의 측정 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도구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Situation Six의 모든 요인은 하나 이상 DIAMONDS의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일부 요인들 간에는(e.g., Situation Six 모델의 ‘부정성’과 DIAMONDS 모델의 ‘부정성’) .60($p < .001$)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Oreg et al., 2020), Situation Six 질문지가 RSQ-8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사료된다.

Situation Six 모델은 어휘적 접근법(Lexical study)을 통해 개발된 모델이다. 어휘적 접근법은 한 문화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속성과 관련된 개념은 해당 문화의 어휘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휘가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Rauthmann, 2020). 이러한 어휘적 접근법의 가정을 바탕으로 Situation Six 모델은 상황의 특성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형용사 단어들을 요인분석하여 도출한 6가지의 상황 요인으로 구성된 모델이다. 그 6가지의 요인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부

정성,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긍정성, 일상적이고 친숙한 보통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익숙함, 요구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강제성, 비일상적이고 기이한 상황을 나타내는 특이함, 수용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올바름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를 측정하기 위해 6개 요인을 표현하는 36개의 히브리어 형용사를 영문으로 변환한 Situation Six 질문지가 개발되었으며(Rauthmann, 2020), 본 연구에서는 영문 척도를 한국어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Situation Six 질문지는 부정성(예: ‘무서운’, ‘참혹한’), 긍정성(예: ‘훌륭한’, ‘경이로운’), 익숙함(예: ‘전형적인’, ‘보통의’), 강제성(예: ‘구속력이 있는’, ‘요구가 많은’), 특이함(예: ‘미친’, ‘도발적인’), 올바름(예: ‘사실에 의거한’, ‘객관적인’)의 6가지 상황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 문항에 대한 평가는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진다(1 = ‘매우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Situation Six 질문지의 각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부정성 .94, 긍정성 .88, 익숙함 .95, 강제성 .87, 특이성 .94, 올바름 .90이었다.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

RSQ-8의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성격 5요인을 측정하는 도구인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을 활용하였다. 준거 타당도는 개념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도구와 상관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개념을 포함하는 기존 도구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만, 역경 및 부정성 상황은 높은 신경증과 관련이 있으며(Parrigon et al., 2017; Rauthmann, 2020), 의무 상황은 성실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De Young, Quilty, & Peterson, 2007). 또한 지적 능력 상황은 외향성 및 개방성과 정적 관계를 가지며(De Young et al., 2007), 긍정성과 사회성 상황의 경우 외향성 및 친화성과는 정적 관계를, 신경증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Parrigon et al.,

2017).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상황 요인과 성격 5요인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이 RSQ-8의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타당한 도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은 안현의와 안창규(2017)가 한국 문화가 반영된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NEO 성인용 성격검사의 단축형 검사이다(문희경·안현의, 2022).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성향인 친화성(예: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 등에 쉽게 공감한다.'), 사회적 규범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인 성실성(예: '어떤 일이든 빈틈없이 정확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타인 및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에너지 수준을 의미하는 외향성(예: '나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수준과 관련이 있는 신경증(예: '짜증이 잘 나고, 종종 신경질을 부린다.'), 새로운 외부 자극, 변화, 다양성을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방성(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창의적이다.')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문항 평가에는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NEO 성인용 성격검사의 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친화성 .84, 성실성 .91, 외향성 .92, 신경증 .95, 개방성 .87이었다.

연구 절차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no. Ewha 202110-0008-01). 또한 RSQ-8과 Situation Six 질문지 문항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한국어로 번안하는 작업을 거쳤다. 먼저 심리학 박사 1인과 심리학 박사과정의 1인이 영문을 국문 문항으로 번역하였으며,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심리학 석사과정의 1인이 이를 다시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마지

막으로 심리학 박사 1인과 심리학 박사과정의 1인이 기존의 도구와 역번역 절차를 거친 도구 내용의 동등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척도의 번안을 완성하였다.

DIAMONDS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설계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연구 주제에 대한 초기 연구는 다양한 연구 설계를 통해 해당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권장된다(Creswell, 1994; Ponterotto,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 상황 분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두 가지의 연구 설계(ver 1, ver 2) 방법을 참고하여 DIAMONDS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두 가지 연구 설계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상황 제시 방법에 차이가 있다.

ver 1의 참여자들의 경우, 먼저 설문지 내용 중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에 응답하였다. 이후 지시문에서 어제 하루 중 특정 시간(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7시)을 무작위로 부여받고 해당 시간에 경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린 후, ① 해당 상황의 발생 장소(예: 직장에서), ② 함께 있었던 인물(예: 직장 동료와), ③ 본인의 행위(예: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를 주관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였다. 이후 본인이 묘사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설문지에 제시되는 상황 분류 척도의 문항들이 해당 상황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대한 객관식 질문에 응답하였다.

ver 2의 참여자들 역시 설문지 내용 중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에 먼저 응답하였다. 이후 DIAMONDS 모델의 8가지 상황 요인들 중 하나의 요인과 관련된 상황 묘사 글(Vignett)을 제시받은 후, 상황 분류 척도가 해당 상황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평가하였다.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 묘사 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25~39세의 성인 남녀 122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 참여자들은 어제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7시에 경험했던 각각의 상황을 떠올린 후, DIAMONDS 모델을 구성하는 8가

지의 상황 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었다 (예: DIAMONDS 긍정성 설명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 그 후 본인이 작성한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7시 상황이 각각 8가지의 상황 요인 중 어떤 상황 요인과 가장 유사한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각각의 요인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실제 상황들 중 가장 빈번하게 응답된 상황을 각색하여 DIAMONDS 모델의 8가지 상황 분류 중 하나의 요인과 가장 명확하게 연관되는 2~3문장의 상황 묘사 글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의무와 관련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 묘사 글로 제시되었다. ‘나는 건축 회사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에 과장님으로부터 협력 업체에 사업 진행과 관련된 메일을 보낼 것을 지시받고 협력 업체에 메일을 전송했다. 그리고 지금은 내일 회의에서 발표할 월말 성과 보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을 마무리한 후에는 회의 때 팀원들에게 나누어 줄 자료를 미리 출력해 둘 예정이다.’

분석 방법

연구 결과의 분석 방법은 두 연구 설계에서 모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확인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 및 RSQ-8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각 척도의 요인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확인하고자 해당 척도의 요인별 Cronbach's α 지수를 산출하였다. 해당 분석에는 모두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DIAMONDS 모델을 측정하는 RSQ-8의 척도 타당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RSQ-8의 경우에는 개발 과정에서 이론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최대 우도 추출법 및 사각 회전 방식(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해서는 χ^2 검증과 CFI, TLI, RMSEA,

SRMR 지수를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RSQ-8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RSQ-8과 Situation Six 질문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준거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 RSQ-8과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해당 분석에는 Mplus 7과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앞선 과정을 통해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는 각기 다른 상황 제시 방법으로 수집한 ver 1과 ver 2 자료가 동일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ver 1과 ver 2의 RSQ-8 설문 결과에 대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구인 동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의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해당 분석에는 Mplus 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DIAMONDS 모델의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ver 1과 ver 2 모든 요인의 왜도와 첨도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킴을 확인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다음으로 DIAMONDS 모델의 요인 간 상관분석의 결과 ver 1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25~.71, ver 2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37~.73 사이의 수치였다. 이를 통해 ver 1과 ver 2 요인 간 상관계수 수치에는 미미한 차이가 있으나, 두 자료에서 모두 비슷한 상관관계 강도와 방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별 내적 신뢰도를 확인해 본 결과, ver 1의 경우 의무 .90, 지적 능력 .85, 역경 .93, 연애 .81, 긍정성 .93, 부정성 .92, 기만 .91, 사회성 .88, ver 2의 경우 의무 .80, 지적 능력 .80, 역경 .93, 연애

.87, 긍정성 .95, 부정성 .93, 기만 .90, 사회성 .84 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χ^2 값의 경우 유의 수준이 .05 이하, 표준화된 χ^2 지수가 3 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Kline, 2015). 적합도 지수의 경우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우수한 적합도로 간주되며, SRMR의 경우 .08 이하의 수치를 우수한 적합도의 기준으로 본다(김수영, 2016). 또한 RMSEA는 .05 이하일 때 우수한 적합도, .05~.10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평가한다(Hu & Bentler, 1999). ver 1의 경우 표준화된 χ^2 와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ver 2의 경우 TLI 수준이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90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ver 2의 표준화된 χ^2 및 다른 적합도 지수 값이 모두 우수한 수준을 보이는 점, TLI 값이 우수한 적합도의 기준인 .90의 근사치인 점, 모형의 적합도 중 일부 적합도 지수가 우수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김계수, 2015) 등을 고려할 때 ver 1과 ver 2에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DIAMONDS 모델의 적합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RSQ-8의 32개의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문항인지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의 개별 모수 추정치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인 표준화된 계수의 값이

최소한 .40 이상일 때 각 문항이 해당 요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보며, .70 이상이 될 경우 바람직한 수준으로 간주한다(Floyd & Widaman, 1995). ver 1과 ver 2의 표준화된 계수 값을 확인해 본 결과, 모든 문항이 .40 이상($p < .001$)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요인이 .70 이상($p < .001$)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에 DIAMONDS 상황 분류 모델의 8요인은 한국 문화권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수렴 타당도

Situation Six 질문지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집된 RSQ-8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ver 1과 Situation Six 모델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26~.68 사이의 값을 가지며, ver 2와 Situation Six 모델 요인 사이에는 -.34~.71 사이의 상관계수가 확인되었다. 연구 설계 방법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모든 DIAMONDS 모델 요인은 Situation Six 모델의 5~6개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DIAMONDS 모델의 각 요인과 개념적 유사성을 가지는 Situation Six 모델 요인(예: DIAMONDS 모델의 '부정성'과 Situation Six 모델의 '부정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DIAMONDS 모델의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준거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상황 분류 모델 요인들이 성

표 1. DIAMONDS 모델의 적합도

	χ^2	df	χ^2/df	CFI	TLI	SRMR	RMSEA[90% CI]
ver 1	910.40	436	2.08	.92	.91	.06	.06[.06-.07]
ver 2	902.82	436	2.07	.90	.89	.07	.07[.07-.08]

표 2. DIAMONDS 모델의 개별 모수 추정치 결과

	ver 1				ver 2			
	Estimate	S.E.	Est./S.E.	P-Value	Estimate	S.E.	Est./S.E.	P-Value
의무								
의무 1	.76	.02	33.13	0.000	.72	.02	17.50	0.000
의무 2	.77	.02	31.43	0.000	.60	.03	11.75	0.000
의무 3	.86	.01	45.21	0.000	.52	.04	9.94	0.000
의무 4	.91	.01	69.15	0.000	.87	.03	29.20	0.000
지적 능력								
지적 능력 1	.86	.01	48.87	0.000	.74	.02	18.48	0.000
지적 능력 2	.90	.01	59.31	0.000	.85	.03	26.52	0.000
지적 능력 3	.71	.02	24.77	0.000	.64	.04	13.08	0.000
지적 능력 4	.51	.04	12.22	0.000	.52	.04	9.11	0.000
역경								
역경 1	.90	.01	75.01	0.000	.90	.01	49.43	0.000
역경 2	.94	.01	101.76	0.000	.93	.01	56.46	0.000
역경 3	.89	.01	64.37	0.000	.78	.03	23.87	0.000
역경 4	.80	.02	39.01	0.000	.76	.03	22.23	0.000
연애								
연애 1	.75	.02	28.17	0.000	.87	.02	42.23	0.000
연애 2	.94	.01	66.65	0.000	.90	.01	49.79	0.000
연애 3	.78	.02	33.43	0.000	.91	.01	53.74	0.000
연애 4	.40	.04	8.68	0.000	.53	.04	10.22	0.000
긍정성								
긍정성 1	.95	.01	120.36	0.000	.96	.01	131.15	0.000
긍정성 2	.95	.01	120.93	0.000	.98	.01	42.74	0.000
긍정성 3	.91	.01	86.85	0.000	.95	.01	80.17	0.000
긍정성 4	.62	.03	18.51	0.000	.73	.03	39.14	0.000
부정성								
부정성 1	.81	.02	38.21	0.000	.85	.02	38.13	0.000
부정성 2	.87	.01	54.66	0.000	.86	.02	42.74	0.000
부정성 3	.85	.01	48.79	0.000	.95	.01	80.17	0.000
부정성 4	.88	.01	59.39	0.000	.85	.02	39.14	0.000
기만								
기만 1	.79	.02	36.13	0.000	.65	.04	15.18	0.000
기만 2	.80	.02	37.63	0.000	.86	.02	38.06	0.000
기만 3	.91	.01	70.11	0.000	.89	.01	45.84	0.000
기만 4	.90	.01	66.60	0.000	.89	.01	46.17	0.000
사회성								
사회성 1	.74	.02	27.95	0.000	.64	.03	13.59	0.000
사회성 2	.89	.01	56.23	0.000	.84	.02	25.25	0.000
사회성 3	.90	.01	58.50	0.000	.80	.02	22.26	0.000
사회성 4	.79	.02	34.24	0.000	.66	.03	14.61	0.000

* 문항 번호 1~4는 <부록 1>에 제시된 RSQ-8 문항 번호에 따른 순서임.

표 3. DIAMONDS 모델과 Situation Six 모델의 상관관계

ver 1	Situation Six 모델					
	부정성	긍정성	익숙함	강제성	특이성	올바름
의무	.19**	.14**	.01	.52***	.18**	.15**
지적 능력	.31***	.34***	-.10*	.47***	.31***	.07
역경	.67***	.30***	-.11***	.45***	.68***	-.10***
연애	.48***	.42***	-.02	.30***	.50***	.09*
긍정성	-.14**	.42***	.19***	-.26***	-.10*	.28***
부정성	.62***	.22***	-.13*	.60***	.61***	-.07
기만	.59***	.31***	-.08*	.51***	.60***	.01
사회성	.11*	.43***	.13**	.15**	.11*	.29***
ver 2	부정성	긍정성	익숙함	강제성	특이성	올바름
의무	.28***	.11*	.03	.45***	.23***	.08
지적 능력	.24***	.32***	.10	.48***	.30***	.14**
역경	.62***	.32***	-.03	.45***	.60***	-.08
연애	.28***	.50***	.21***	.39***	.37***	.26***
긍정성	-.34***	.38***	.36***	-.08	-.24***	.37***
부정성	.71***	.17**	-.21***	.50***	.57***	-.10
기만	.59***	.25***	-.11*	.44***	.62***	-.10
사회성	-.05	.35***	.25***	.16**	-.03	.43***

Note. * $p < .05$, ** $p < .01$, *** $p < .001$

격 5요인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Rauthmann et al., 2014) RSQ-8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NEO 성격검사 단축형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DIAMONDS 요인들과 성격 5요인 간 상관계수의 값은 -.14~.36 사이에 분포해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DIAMONDS 모델 요인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성격 5요인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상관 수준은 보통 수준이었다(예: DIAMONDS 모델의 '사회성'과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의 '개방성').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RSQ-8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의 의미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기존에 개발

된 척도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다집단 분석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ver 1과 ver 2 집단의 구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는지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 간 적합도 지수를 비교했을 때 CFI와 TLI의 변화량이 .010 이하, RMSEA 변화량이 .015 이하일 경우 구인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heung & Rensvold, 2002). 먼저 형태 동일성의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872) =$

표 4. DIAMONDS 모델과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의 상관관계

ver 1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의무	.18**	.23***	.24***	.08*	.22***
지적 능력	.23***	.23***	.29***	.10**	.36***
역경	.03	-.03	.09*	.25***	.12*
연애	.03	.03	.10*	.15**	.14**
긍정성	.24***	.12***	.12**	-.04	.16**
부정성	-.02	-.02	.08	.23***	.11*
기만	.03	-.01	.09*	.22***	.17**
사회성	.21***	.12**	.12***	.04	.13**
ver 2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의무	.17**	.14**	.07	-.05	.18**
지적 능력	.17***	.14**	.07	-.01	.25***
역경	-.02	-.12*	-.04	.20***	.05
연애	.02	-.04	.07	.15**	.14**
긍정성	.15*	.10	.17***	.09	.12*
부정성	-.06	-.13**	-.14**	.05	-.02
기만	-.02	-.06	-.08	.18**	.07
사회성	.18**	.03	.06	.09	.12**

Note. * $p < .05$, ** $p < .01$, *** $p < .001$

1813.22($p < .001$), $\chi^2/df = 2.07$, CFI = .92, TLI = .91, RMSEA = .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개별 표본 분석을 실시한 결과, ver 1의 경우 $\chi^2(436) = 910.40(p < .001)$, $\chi^2/df = 2.08$, CFI = .92, TLI = .91,

RMSEA = .06, ver 2의 경우 $\chi^2(436) = 902.82(p < .001)$, $\chi^2/df = 2.07$, CFI = .90, TLI = .89, RMSEA = .07의 결과를 나타내어 두 집단 모두 수용 가능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df 의 차이가 0으로 $\Delta\chi^2$ 가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하지

표 5. DIAMONDS 모델의 측정 동일성 모형 부합도

비교 모형	χ^2	$\Delta\chi^2$	df	Δdf	CFI	TLI	RMSEA [90% CI]
형태 동일성 모형	1813.22		872		.92	.91	.07 [.06-.07]
측정 동일성 모형	1841.55	28.33	896	24	.92	.91	.07 [.06-.07]

않으므로 두 집단의 형태 동일성이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저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χ^2 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Delta\chi^2(24) = 28.33, p > .05$), 기저 모형에 비해 일부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었다($\Delta CFI = 0, \Delta TLI = .002, \Delta RMSEA = -.001$). 이에 두 모형 간에는 측정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자료 수집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DIAMONDS 상황 분류 모델이 한국인의 상황 인식을 타당하게 분류하는 모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DIAMONDS 모델을 측정하는 RSQ-8에 대한 문화적 타당화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두 가지 연구 설계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RSQ-8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 및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연구 설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IAMONDS 상황 분류 모델은 한국인의 상황 인식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먼저 DIAMONDS 모델을 측정하는 RSQ-8 문항들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ver 2의 TLI 지수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괜찮은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DIAMONDS 모델의 적합도 지수와 유사한 결과이다(Rauthmann et al., 2014). 일반적으로 상황 특성 분류 모델에 대한 척도 타당화 연구는 상황

요인의 복잡성으로 인해 좋은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Horstmann, Rauthmann, & Sherman, 2018; Ziegler et al., 2019). 그러나 DIAMONDS 모델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성격 5요인 특성을 반영하는 상황 분류법이기 때문에, 상황 분류를 측정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한국 사회에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로 지칭되는 2030 청년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DIAMONDS 모델의 연애 요인이 부정성 및 역경 상황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애와 부정성·역경은 서로 명확히 구별될 수 없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연애와 부정성 및 역경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ver 1에서 연애와 부정성은 각각 .41($p < .001$)과 .26($p < .001$), ver 2에서 연애와 역경은 .65($p < .001$)와 .53($p < .0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세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교차 부하량이 적합도 수준을 낮춘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비록 통계적으로는 연애·역경·부정성이 구별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연애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위협적 상황으로 해석하는 한국 청년층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DIAMONDS 모델의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RSQ-8과 Situation Six 질문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DIAMONDS 모델 요인과 Situation Six 모델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34~.71 사이에 분포했으며, ver 1과 ver 2에서 두 모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방향성이나 강도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특히 개념상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Situation Six 모델의 부정성과 DIAMONDS 모델의 역경, 부정성, 기만, Situation Six 모델의 긍정성과 DIAMONDS 모델의 긍정성 모두 유의미한

수준 이상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념상 동질적인 개념이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인 요인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Situation Six 모델의 긍정성은 DIAMONDS 모델의 사회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 및 행복감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로 뒷받침될 수 있다(Costa & McCrae, 1980; Emmons & Diener, 1985). 또한 Situation Six 모델에서의 강제성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DIAMONDS 모델에서의 연애 요인과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성인 초기 연령대의 연애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성인 초기의 연애 관계가 일반적인 대인 관계와는 달리,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많은 시간과 일상을 함께해야 하는 관계로 인식된다는 국내 연구의 결과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김혜선 · 박효진, 2020).

한편 선행 연구의 경우 Situation Six 모델의 올바름과 가장 상관이 높은 요인은 DIAMONDS 모델의 의무 요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의 관계 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무 요인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업무 상황인 것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서구의 업무 조직은 개인의 책임 · 성과 및 합리적 계약을 중시하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의 조직은 상대적으로 가족주의적 · 인정적 · 관계 중심적 요소를 강조한다(정하영, 2005). 이와 같은 동서양 조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구 문화권에서의 의무 상황이 지닌 객관성과 합리성이 더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올바름과 의무 요인의 상관관계 수준이 선행 연구에 비해 낮게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DIAMONDS 모델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성격 5요인을 측정하는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간 상관관계는 -.14~.36 수준에 분포하여 강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준거 타당도를 가진다는 것은 한 요인이 다른 요인과 개념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상관 수준이 .30인 것을 고려할 때(Wang & Wang, 2019)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관계수는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수치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DIAMONDS 모델 요인 및 성격 5요인의 관계에서 서로 의미의 유사성이 있는 요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DIAMONDS 모델의 의무는 성실성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의무 상황은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과 관련되는데, 성실성의 주요한 특징이 자신의 행동 기준이나 의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책임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안현의 · 안창규, 2017). DIAMONDS 모델의 지적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성격 요인은 개방성이었으며, 이는 개방성의 핵심 개념 중 지적인 호기심과 심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문희정 · 안현의, 2020). DIAMONDS 모델의 역경, 부정성 및 기만은 신경증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이는 신경증이 부정적 정서를 쉽게 경험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 선행 상황 분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과 신경증의 유의미한 관계는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다(Griffo & Colvin, 2019; Oreg et al., 2020). DIAMONDS 모델의 긍정성과 가장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지는 요인은 친화성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해 긍정 정서가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Dunn & Schweitzer, 2005). 마지막으로 DIAMONDS 모델의 사회성 역시 친화성과 가장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공감적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은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성과 친화성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안현의·안창규, 2017).

그러나 개념상 DIAMONDS 모델의 사회성 요인과 가장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외향성 성격 요인은 본 연구에서 사회성 요인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성 이론에 따르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Costa & McCrae, 1980), 외향적인 사람이 반드시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Rauthmann et al., 2014).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간이 반드시 본인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상황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나 책임·강제성 등의 영향으로 성격과 관련이 없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DIAMONDS 모델을 측정하는 RSQ-8 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연구의 설계 방법에서 동일한 구조가 도출되었으며, 실제로 다집단 분석을 통해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DIAMONDS 모델 요인 구조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요인 구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DIAMONDS 모델의 요인 구조가 자료 수집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고한 구조라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DIAMONDS 모델의 타당성 역시 교차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DIAMONDS 모델은 국내의 표본에 대한 적용 타당성도 확보하였으며, 이는 DIAMONDS 모델 요인들이 어떠한 문

화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DIAMONDS 모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89개의 RSQ 문항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번안되었으며, 20여 개 국가에서 실시한 RSQ 평가 결과를 두고 국가 간 상관 수준을 측정한 결과, 상관 수준이 $.73 \sim .95$ ($p < .001$)에 달했다. 이는 RSQ를 통한 상황 평가 결과가 어느 문화권인가에 관계없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Guillaume et al., 2016). 특히 한국과 나머지 19개국의 상황 평가 상관계수는 $.73$ (독일)~ $.84$ (미국) ($p < .001$) 사이에 분포했는데, 국내 표본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표본 집단이 RSQ가 개발된 미국 표본이기 때문에 RSQ 문항들로 구성된 DIAMONDS 모델이 한국 문화권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되는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 분류 모델의 타당화를 통해 상황 인식의 개인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DIAMONDS 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상황 인식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황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상황 인식을 측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다. 또한 이로 인해 개인 간 상황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DIAMONDS 모델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상황에 대한 분류법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함께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황 인식에 대한 개개인의 차이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DIAMONDS 모델의 문화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국내 표본의 다양한 상황 인식 연구에 DIAMONDS 모델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DIAMONDS 모델은 다른 상황 분류법에 비해 연애·속임수·사회성 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발되는 인지·정서·행동 등

에 미치는 상황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유용성을 가진다(Funder, 2016). 또한 DIAMONDS 모델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역경·부정성·기만과 같은 구체적인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존의 상황 분류 연구는 모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상황 연구자들은 상황 분류와 관련된 연구가 서구 이외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Horstmann et al., 2018; Rauthmann & Sherman, 202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 문화권 이외의 국가에서 진행된 첫 번째 상황 분류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DIAMONDS 상황 분류 모델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되며, DIAMONDS 모델의 요인 구조가 문화권 구별에 관계없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과,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서구 문화권과 한국 문화권에서 도출된 상황 분류 연구 결과들의 비교·분석 역시 가능해졌다는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DIAMONDS 모델이 한국인의 상황 인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류법인 것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모델이 처음부터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개발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 개발 당시에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고유한 상황이 요인 구성에 포함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향후 국내 문화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타당한 상황 분류법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 상황 분류 모델의 개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인의 상황 인식에 대한 분류법을 새롭게 개발해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연구 결과에 주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가급적 동질적인 표본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표집 대상을 초기 성인기 연령대인 만 25~39세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장인으로 한정하였으며, 해당 집단에서는 DIAMONDS 모델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다만 해당 집단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황과 이외 연령대의 집단이 경험하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DIAMONDS 모델의 8가지 상황 요인들을 경험하는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Brown & Rauthmann, 2016).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표본을 대상으로도 본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도출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하나의 이론적 모델이 보편적인 이론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반복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성격 5요인 모델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동서양에 관계없이 해당 모델을 측정하는 다수의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었으며, 해당 도구들의 타당성이 반복적으로 검증되면서 5요인 모델의 보편성이 확립되었다. 대표적으로 성격 5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서구 문화권에서는 NEO-PI-R(NEO-Personality Inventory-Revised; Costa & McCrae, 1992), IPIP-NEO-300(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NEO-300; Goldberg, 1999), BFI(Big Five Inventory; Rammstedt & John, 2007)가, 국내에서는 5요인 성격검사(유태용·김명인·이도형, 1997), 성격 5요인 검사(정승철·최은실, 2016), NEO 성격검사(안현의·안창규, 2017) 등이 개발되었으며, 그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성격 5요인의 측정 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측정 도구도 개발되어 그 타당성 역시 확보된 바 있다(안현의·안창규, 2017). 이처럼 향후 DIAMONDS 모델의 타당성을 공고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권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측정 도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모델

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저자소개

문희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에서 특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에는 성격 특성 이론, 상황 분류 모델, 심리상담 등이 있다.

안현의는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에는 성격 특성 이론, 트라우마, 비판 심리학 등이 있다.

참고문헌

김계수 (2015). R-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한나래출판사.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김혜선, 박효진 (2020). 대학생의 연애를 통해서 본 친밀한 관계의 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1), 133-153.

문희정, 안현의 (2020). 성격 5요인을 기반으로 한 NEO 성격검사 성인용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이해*, 41(1), 1-22.

문희정, 안현의 (202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EO 성인용 성격검사 단축형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9(11), 535-561.

안현의, 안창규 (2017). NEO 성격검사-전문가 지침서. 서울: ㈜인싸이트.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1), 85-102.

인구보건복지협회 (2022). 청년의 연애, 결혼, 그리고 성 인식. *저출산인식조사 토론회*.

정승철, 최은실 (2016). 성격 5요인검사 BFI 전문

가용 매뉴얼. 경기: 한국가이던스.

정하영 (2005). 동서양 조직관(론) 비교. *정부학연구*, 11(2), 224-260.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1), 1-171.

Bartistich, V. A., & Thompson, E. G. (1980). Students' perceptions of the college milieu: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6(1), 74-82.

Block, J., & Block, J. (1981). Studying situational dimensions: A grand perspective and some limited empiricism. In D. Magnusson (Ed.), *Toward a psychology of situations: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pp. 85-106). Hillsdale, NJ: Erlbaum.

Brown, N. A., & Rauthmann, J. F. (2016). Situation characteristics are age graded: Mean-level patterns of the situational eight DIAMONDS across the life spa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7), 667-679.

Brown, N. A., Neel, R., & Sherman, R. A. (2015). Measuring the evolutionarily important goals of situations: Situational affordances for adaptive problems. *Evolutionary Psychology*, 13(3), 1-15.

Cattell, R. B. (1943). The descrip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50(6), 559-594.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Cohen, D., & Nisbett, R. E. (1997). Field experiments examining the culture of honor: The role of institutions in perpetuating norms about viol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1), 1188-1199.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678.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eo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NEO PI-R)*.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eswell, J. W. (199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es, CA: Sage.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 Young, C. G., Quilty, L. C., & Peterson, J. B. (2007). Between facets and domains: 10 aspects of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880-896.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1), 417-440.
- Dunn, J. R., & Schweitzer, M. E. (2005). Feeling and believing: the influence of emotion on tru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736-748.
- Eckes, T. (1995). Features of situations: A two-mode clustering study of situation prototyp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4), 366-374.
- Edwards, J. A., & Templeton, A. (2005). The structure of perceived qualities of situ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6), 705-723.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1), 89-97.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75).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junior and adult)*. San Diego, CA: EdITS.
- Fleeson, W. (2004). Moving personality beyond the person-situation debate: The challenge and the opportunity of within-person variabi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3(2), 83-87.
- Fleeson, W., & Jayawickreme, E. (2015). Whole trait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6, 82-92.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299.
- Forgas, J. P. (1976). The perception of social episodes: Categorical and dimensional representations in two different social milie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2), 199-209.
- Funder, D. C. (2006). Towards a resolution of the personality triad: Persons, situations, and behavio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1), 21-34.
- Funder, D. C. (2016). Taking situations seriously: The Situation Construal Model and the Riverside Situational Q-Sor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5(3), 203-208.
- Gerpott, F. H., Balliet, D., Columbus, S., Molho, C., & De Vries, R. E. (2018). How do people think about interdependence? A multidimensional model of subjective outcome interdepen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5(4), 716-742.
- Goldb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41-165.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1), 7-28.
- Griffo, R., & Colvin, C. R. (2019). An exploration of subjective situation dimensions associated with situation-specific behavior.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0(4), 504-513.
- Guilford, J. P. (1975). Factors and factor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82(5), 802-814.
- Guillaume, E., Baranski, E., Todd, E., Bastian, B., Bronin, I., Ivanova, C., ... & Funder, D. C. (2016). The world at 7: 00: Comparing the experience of situations across 20 countries. *Journal of Personality*, 84(4), 493-509.
- Hogan, R. (2009). Much ado about nothing: The person-situation debat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2), 249.
- Horstmann, K. T., Rauthmann, J. F., & Sherman, R. A. (2018). Measurement of situational influences. In V. Zeigler-Hill & T. K. Shackelford (Eds.), *The SAGE Handbook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pp. 465-484). New York: SAGE Publication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ikutani, M., Ikemoto, M., Russell, J., & Roberson, D. (2016). Cultural influences on the structure of emotion: An investigation of emotional situations described by individuals from Cambodia, Japan, UK and U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 20-26.
- King, G. A., & Sorrentino, R. M. (1983). Psychological dimensions of goal-oriented interperson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40-162.
- Kline, P. (2015). *A handbook of test construction (psychology revivals): introduction to psychometric design*. Oxfordshire, England: Routledge.
- Krause, M. S. (1970). Use of social situations for research purposes. *American Psychologist*, 25(8), 748-753.
- Leong, F. T. L., & Chou, E. (1997). *Threats to cultural validity in clinical diagnosis and assessment: Case of Asian America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colloquiu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Harbor Campus.*
- MacIver, R. M. (1942). *Social Causation*, Ginn and Co. New York.
- Magnusson, D. (1971). An analysis of situational dimen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2(3), 851-867.
- Mischel, W. (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Mischel, W., & Shoda, Y. (1995). A cognitive-affective system theory of personality: Reconceptualizing situations, dispositions, dynamics, and invariance in personality structure. *Psychological Review*, 102(2), 246-268.
- Mischel, W., & Shoda, Y. (2000). Toward a unified theory of personality. In O. P. John, R.W. Robins, & L. A. Pervi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208-241). New York: Guilford Press.
- Moos, R. H. (1973). Conceptualizations of human environments. *American Psychologist*, 28(8), 652-665.
- Murray, H.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ewcomb, T. M. (1929). *The consistency of certain extravert-introvert behavior patterns in 51 problem boys*. Oxford, England: Teachers College.
- Nisbett, R. E., & Norenzayan, A. (2002). Culture and cognition. In H. Pashler & D. K. Medin(Eds.), *Steven's Handbook of Experimental*

- Psychology: Cognition* (pp. 561-596). New York: Wiley.
- Oreg, S., Edwards, J. A., & Rauthmann, J. F. (2020). The situation six: Uncovering basic dimensions of psychological situations from the Hebrew langu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8*(4), 835-863.
- Parrigon, S., Woo, S. E., Tay, L., & Wang, T. (2017). CAPTION-ing the situation: A lexically-derived taxonomy of psychological situation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4), 642-681.
- Pervin, L. A. (1976). A free-response descriptio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erson-situation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3), 465-474.
- Pervin, L. A. (1978). Definitions, measurements, and classifications of stimuli, situations, and environments. *Human Ecology, 6*(1), 71-105.
- Phares, E. J. (1984).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 Ponterotto, J. G. (2005).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A primer on research paradigms and philosophy of sc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26-136.
- Rammstedt, B., & John, O. P. (2007). Measuring personality in one minute or less: A 10-item short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in English and Germa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1), 203-212.
- Rauthmann, J. F. (2020). Capturing interactions, correlations, fits, and transactions: A Person-Environment Relations Model. In J. F. Rauthmann (Ed.), *The Handbook of Personality Dynamics and Processes*. Amsterdam, Netherlands: Elsevier.
- Rauthmann, J. F., & Sherman, R. A. (2016). Situation change: Stability and change of situation variables between and within persons. *Frontiers in Psychology, 6*, 1938.
- Rauthmann, J. F., & Sherman, R. A. (2020). The situation of situation research: Knowns and unknow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9*(5), 473-480.
- Rauthmann, J. F., Gallardo-Pujol, D., Guillaume, E. M., Todd, E., Nave, C. S., Sherman, R. A., ... Funder, D. C. (2014). The Situational Eight DIAMONDS: A taxonomy of major dimensions of situation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4), 677-718.
- Rauthmann, J. F., Horstmann, K. T., & Sherman, R. A. (2020).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ituations: Towards an integrated taxonomy. In J. F. Rauthmann, R. A. Sherman, & D. C. Fund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psychological situ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uthmann, J. F., Jones, A. B., & Sherman, R. A. (2016). Directionality of person-situation transactions: Are there spillovers among and between situation experiences and personality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7), 893-909.
- Rauthmann, J. F., Sherman, R. A., Nave, C. S., & Funder, D. C. (2015). Personality-driven situation experience, contact, and construal: How people's personality traits predict characteristics of their situations in daily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5*, 98-111.
- Reis, H. T. (2008). Reinvigorating the concept of situation in soci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4), 311-329.
- Sherman, R. A., Nave, C. S., & Funder, D. C. (2010). Situational similarity and personality predict behavioral 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2), 330-343.
- Tabachnick, B. G., Fidell, L. S., & Ullman, J. B.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Boston, MA:

- Pearson.
- Ten Berge, M. A., & De Raad, B. (2002). The structure of situations from a personality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2), 81-102.
- Ten Berge, M. T., & De Raad, B. D. (2001). The construction of a joint taxonomy of traits and situation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4), 253-276.
- Tett, R. P., & Burnett, D. D. (2003). A personality trait-based interactionist model of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3), 500-517.
- Tsai, J. L. (2007). Ideal affect: Cultural causes and behavioral consequenc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3), 242-259.
- Van Heck, G. L. (1989). Situation concept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In P. J. Hettema (Ed.), *Personality and environment: Assessment of human adaptation* (pp. 53-69). Oxford: John Wiley.
- Wagerman, S. A., & Funder, D. C. (2009). *Personality psychology of situation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 J., & Wang, X.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New York: John Wiley & Sons.
- Yang, Y., Read, S. J., & Miller, L. C. (2006). A taxonomy of situations from Chinese idiom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5), 750-78.
- Yang, Y., Read, S. J., & Miller, L. C. (2009). The concept of situation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3*(6), 1018-1037.
- Ziegler, M., Horstmann, K. T., & Ziegler, J. (2019). Personality in situations: Going beyond the OCEAN and introducing the Situation Five. *Psychological Assessment, 31*(4), 567-580.

1 차원고접수 : 2023. 11. 03.

수정원고접수 : 2024. 05. 02.

최종게재결정 : 2024. 05. 28.

Situation Taxonomy Based on Koreans' Perception of Situational Characteristic - The DIAMONDS Model as a Focus -

Hee Jeong Moon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With this study, we aimed to determine the cultural appropriateness of the DIAMONDS model as a situational taxonomy within the South Korean cultural context. Using a sample from the local population, we conducted a validation of the Riverside Situational Q-Sort-8 (RSQ-8), designed for measuring the DIAMONDS model (consisting of duty, intellect, adversity, mating, pOsitivity, negativity, deception, and sociality). The study included 445 male and female adult participants aged 25 to 39. We gathered data through two distinct methods, each subjected to separate scale validation processes.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indicated an acceptable model fit. We established convergent and criterion validity through correlations with the Situation Six Questionnaires and the NEO Adult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 Short Form (NEO-Adult-PAS-SF). Additionally, we did not observe any differences in factor structure between the two data collection methods. Our results support the applicability of the DIAMONDS model as a situational taxonomy within the South Korean cultural context. Finally, we considered the study'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Key words : situation characteristic, situational taxonomy, DIAMONDS model, RSQ-8, cultural validation

부록: RSQ-8

* 제시된 문장이 **방금 당신이 떠올렸던 상황**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시된 문장이 방금 당신이 떠올렸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무언가를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소한 세부 사항들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업무 중심의 사고가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상황에는 지적 또는 인지적 자극들이 포함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상황은 지적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상황은 독특한 아이디어나 관점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상황은 생활 방식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비판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무언가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위협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무엇으로부터) 지배당하거나 좌지우지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잠재적인 성적 또는 연애 파트너가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상황은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극을 포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신체적 매력과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반대 성별의 구성원들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상황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상황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상황이 익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상황이 단순하고 명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상황이 불안감을 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상황은 걱정이나 트라우마를 수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상황은 누군가를 긴장시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상황은 좌절감을 수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행위는 악화되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상황은 적대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이 상황 속의 누군가는 남을 기만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혹은 친밀한 개인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상대방의 행동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마음이 든든해지는 사람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성] 의무(1~4번) / 지적 능력(5~8번) / 역경(9~12번) / 연애(13~16번) / 긍정성(17~20번) / 부정성(21~24번) / 기만(25~28번) / 사회성(29~22번)